

양록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책

본회 사무국장 방상국

우리나라 양록은 해방직후 개성에서 가져온 만주록 꽃사슴 몇마리와 1955년 이후 수입한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등이 번식되어 현재 약 8만여두가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다. 단 한마리의 사슴도 없던 1940년대에 비하면 엄청난 수의 사슴 보유국이 됐지만 중국, 소련, 미국, 뉴질랜드 및 북유럽 여러나라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규모일 뿐이다. 사슴사육 규모와 사육기술은 뒤떨어지지만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8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 녹용소비시장이 되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사슴에서 떨어진 녹각까지 년 60-70만 키로를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많은 녹용 소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국내 양록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1) 양록에 대한 인식전환
- (2) 사양관리 기술개발
- (3) 종록개량
- (4) 유통구조 개선
- (5) 경영개선
- (6) 불공정 과세 시정

1. 양록에 대한 인식 전환

1955년부터 1983년까지 수입된 사슴수는 1,216두였으나, 1975년말에는 사육두수가 꽃사슴 3,332두(90%), 레드디어 138두(4%), 엘크 207두(6%) 합계 3,677두(농수산부 자료)로서 한국양록의 기초가 형성됐다고 하겠다. 녹용을 영약으로 귀하게 취급하는 우리에게 사슴은 귀중한 동물로 인기가 대단해서 좀 여유있는 동

물애호가들이 서로 분양을 다투게 되자 금지된 사슴수입을 획책하기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사슴값은 몇갑절 뛰기 시작해서 일반 농민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가동물이 되므로서 사슴은 사치성 특수축종이라는 대명사가 붙게 됐다.

이렇게 출발한 양록산업은 14년동안에 꽃사슴 7만여두, 레드디어 3,000여두, 엘크 4,000여두등 무려 20배로 증식되어 건녹용 12,000kg 생산을 보게 됐다.(년증식율 26%)

1960년대 중반부터 사치성은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10두미만의 농민사육이 86%로 사육동향이 크게 바뀌면서 사슴값이 계속 하락하자 많은 사치성 양록인은 사슴을 방매하고 폐업했다. 반면 사슴 증식은 계속 되어서 앞으로 5년후에는 23만여두의 사슴에서 3만8천키로의 녹용

생산이 가능하며 10년후인 2000년에는 70-80만두로 증식되어 한우, 죽소, 돼지, 닭에 이어 5대 축종으로 성장될 것이며 12-14만 키로의 녹용생산으로 국산자급이 실현된다. 뿐만 아니라 년간 10만여두의 사슴 도축으로 3,000-4,000t의 녹육생산과 10만개의 녹피와 녹미, 그리고 5만개의 녹신 생산으로 축산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국민생활 향상으로 녹용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어 양록은 축산업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므로 정부당국은 양록산업의 존재를 외면치 말고 축산업으로 인정, 양록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양관리 기술개발

우리나라의 양록업은 자생적인 사육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초보적인 기술만으로도 사슴 두수의 증식과 경영합리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슴 두수의 증식과 더불어 농축산물의 개방화에 대비하려면 사양관리 기술의 혁신, 녹용 및 녹육 생산량의 획기적 증대, 부산물의 가공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양록전반의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지도기관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농업관계 시험기관에서 600여억원의 연구비와 180여명의 연구원이 있고 축산교육기관에서 축산 전문교수 250명이 159억원의 연구비로 연구한다고 한다. 하지만 40년의 역사와 8만여두의 고가 축종인 사슴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시험연구도 없을 뿐아니라 양록을 전

공하는 연구원이나 교수는 물론 없다. 원인은 정부의 축산정책이 한우, 죽소, 돼지, 닭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양록보다 뒤늦게 시작된 뉴질랜드의 경우 80만두의 사슴을 보유한 세계 선진 양록국으로 성장했는데 년간 2만여 키로의 녹용을 수출할 뿐아니라 세계적 녹육 수출국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 축산기관에 사슴연구를 담당할 과(科) 또는 연구실을 신설했고 이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해서 목장 경영인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양록강좌를 설정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가 하면 양록협회로 하여금 양록인의 협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도 양록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국립종축원에서는 사슴의 능력개량과 우수 종록 개발공급, 축산시험장에서는 사슴의 사양관리시험 및 기술개발 지도보급을 전담하고 농림수산부 축정당국은 양록행정을 양록 고유업무 부서에서 관장케 해서 법적, 제도적,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축산교육기관은 양록과목을 설치하고 장, 단기 양록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개방화 사회에 대처하는 자생력을 길러 주어야 될 것이다.

3. 종록개량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있는 사슴은 15년 전 까지 외국에서 수입 번식된 것이다.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꽃사슴은 만주계, 일본계, 대만계의 혼혈종이며 녹용 생산성이 가장 낮아서 성록(5-7세) 두당 생녹용 20-25kg(0.75-0.93 키로)을 생산한다.

녹용생산량은 사육기술과 절각일수(성장일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녹용 품질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녹용생산에 끗지 않은 소득원은 생뿔을 자를 때 채취하는 녹혈인데 꽃사슴 두당 600~800cc를 생산한다.

성록 두당 생녹용 생산량 비교

단위 : kg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한국	0.75-0.93	2.2-2.8	7.5-16.0
뉴질랜드 (헬로우디어)	0.5-1.0	2.3	(북미) 9.0
중국	1.3-1.5		마록 3.5-6.0

국내사슴과 외국사슴의 녹용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꽃사슴 : 국내 꽃사슴에 비해 중국 꽃사슴(만주록)의 녹용생산량이 40% 이상 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레드디어 : 국내 레드디어와 뉴질랜드는 큰 차이가 없고,

엘크 : 엘크사슴은 국내 엘크가 더 많은 녹용생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품종이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특히 생산성이 낮은 꽃사슴 개량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꽃사슴은 녹용 생산만으로는 생산비에 미달되지만 생녹용과 녹혈을 실수요자에 적판하므로서 겨우 현상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슴의 계통간 교류 종간 교잡 등을 통한 생산 능력 재고에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꽃사슴우 + 레드디어 ♂, 레드디어우 + 엘크 ♂

등의 종간 교잡이 진행되고 있다.

혹자는 국내사슴이 수입된지 오래되어 퇴화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성이 낮으므로 종록수입 불가피론을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양록의 못해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편견이라 보아진다.

앞으로 종록개량은 국내사슴의 생산성 재고를 위해 국내사육 환경에 적합한 종록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개량방법으로는 우수한 종모록을 사용한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방법과 생산능력이 다른 종간교잡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내시경을 통한 사슴의 인공수정에서 수태율 70%라는 경이적인 번식 성과를 올리고 있는 설정이므로 생사슴 수입 아닌 우수종균 도입을 통한 번식 개량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하겠다.

4. 유통구조 개선

유통문제는 사슴분양과 부산물(녹용, 녹혈, 녹육, 기타) 판매로 구분해 문제점과 대처를 찾아 보기로 한다.

(1) 사슴분양

사슴은 다른 가축처럼 시장 출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슴 농장에서 분양거래를 해야 하므로 품종, 난령, 수요량 등의 선택이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의 뜻과 같이 되지 않는 설정이다. 이같은 특성때문에 사슴유통을 직업으로 하는 상인들이 있어 자록 분양과 성록거래를 주선하는 관계로 유통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양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양록협회는 3년전부터 사슴시세를 축산 관련 신문에 상설보도 하는 한편 양록상담과 양록 회보를 통해 사육관리, 사슴장 설치, 사슴분양 상담

으로 많이 개선됐으나 신년도부터 일정 규모이상의 양록장의 사슴 분양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슴분양장으로 활용하고 축산관계 신문에 7월과 9월 2회 분양안내 보도를 해서 분양하는 농장과 분양받을 희망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초보자를 위한 사육지침서도 보급계획이므로 사슴분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부산물 유통

사슴 부산물 가운데 상품화하고 있는 것은 녹용과 녹혈뿐이며 사슴 고기와 그밖에 사슴가죽, 숫사슴의 성기, 사슴의 꼬리는 상품화 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녹용보다 녹육(사슴고기)이 주상품이고 녹용은 부산물로 채취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녹피, 녹신, 녹미도 주요 상품으로 개발해 셔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등 높은 양록소득을 올리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녹용과 사슴 보호관계상 치워지는 녹각이 수집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고 있어 세계 제 1의 녹용, 녹각의 소비시장이 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다양한 품종의 녹용 성분 또한 다양할 것이며 품종에 따른 효능도 같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수입량이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녹용 수입과정에서 이를질 주입으로 인한 부정시비가 간혹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보건 정책 당국 또는 관계 연구기관에서 사슴 품종별로 녹용성분과 효능을 연구해서 오용과 남용을 예방함과 아울러 녹용식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야 마땅할 것이다.

해방직후에 시작된 국내 양록은 40년이 되지만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산 녹용의 성분과 효능 시비로 인한 한의약 업계의 수매 거부때문에 생산농가는 실수요자에 적거래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사육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의약 업계의 주장대로 국산녹용의 성분과 효능이 수입녹용보다 못한지, 반대로 국산이 우수한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며 이 결과에 따라 한국양록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인데 아직도 내수의 80%가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20%가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모든 녹용의 무질서한 유통체계를 정비해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공시설(건조, 규격화)과 보관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가 품질표시 상표를 부착해서 직판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녹용의 유통체계 개선으로 공정거래가 실현되면 소비자 부담 또한 반감될 것이다. 이같은 공정거래를 실현하는데는 녹용의 성분과 효능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경영개선

사슴 부산물인 녹용과 녹혈처분이 용이한 도시근교에 사슴 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조사료(갈잎, 아까시아잎, 칡넝쿨)채집이 어렵고 또한 월동용 건초가 톤당 35~40만원에도 구입이 어려운 실정일 뿐아니라 목부 인건비가 40~50만원을 쥐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업규모 농장에서 관리인을 두고 기르던 사치성 양록은 대부분 사슴을 방배하고 폐업했다.

반면 꽃사슴 몇 마리를 직접 사육하는 부업형 농가사육이 늘고 있으나 사육규모를 확대할 수 없

는 것은 녹용과 녹혈 판매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녹용의 성분과 효능 규명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공동 노력해야 할 것임) 따라서 경영개선이 뒤따라야 하는데

첫째 : 조사료 채취가 용이하고 인수성 공해가 적은 산간지방으로 목장을 옮겨 생산비를 절감해야 할 것이며,

둘째 : 부업형 영세사육에서 전업형 직업 양로으로 사육규모를 확대해서 합리적인 경영으로 소득증대를 기해야 하며,

셋째, 새로운 사육기술을 습득해서 사육관리와 질병 예방 그리고 종록개량으로 생산성을 높히는데 노력해야 하며

넷째 : 녹용의 적기 절각과 건조방법을 개선해서 상품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슴 건강과 녹용 생장을 해치는 지나친 체혈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6. 기타사항

전술한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양로농가에 부과하는 불균형 과세가 시정되어야 한다.

첫째 : 모든 가축의 부업규모 사육은 소득세를 면세하고 있지만 부업규모의 양로농가는 소득세 면세가 되지 않고 있다.

둘째 : 녹용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는 수입녹용과의 형평원칙 관계상 불가피하다고 하나 절각 당시의 생녹용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가축 부산물이므로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와 같은 것인데 녹용 생산자가 전지 생녹용을 판매할 때는 특소세가 면세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이 문제는 양로업계를 대변하는 양로협회가 정부 관계당국에 반영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히 불공정 과세를 시정해서 과세형편을 기해야 할 것이다.*

표1. 년도별 사슴두수 및 간녹용 생산량 추정

(단위 : 두 / kg)

년도	년 초 총두수	절각 총두수	녹 용 총생산량	꽃 사슴			레드디어			엔 크			비고
				꽃사슴	절각수	녹용생산량	사슴수	절각수	생산량	사슴수	절각수	생산량	
1976	3,677	1,285	582	3,332	1,166	350	138	47	52	207	72	180	기초년도
1989	70,406	24,641	11,801	62,763	21,867	6,550	3,065	1,072	1,206	4,578	1,602	4,005	현재
1990	89,346	31,270	14,982	79,647	27,876	8,369	3,889	1,361	1,531	5,810	2,033	5,082	
1991	113,380	39,682	19,005	101,072	35,375	10,612	4,935	1,727	1,943	7,373	2,580	6,450	
1992	143,881	50,357	24,118	128,261	44,891	13,467	6,263	2,192	2,466	9,357	3,274	8,185	
1993	182,585	63,903	30,605	162,763	56,967	17,090	7,948	2,781	3,128	11,874	4,155	10,837	
1994	231,700	81,094	38,840	206,546	72,291	21,687	10,086	3,530	3,971	15,068	5,273	13,182	내수의 50%
1995	294,028	102,909	49,291	262,127	91,737	27,521	12,800	4,480	5,040	19,121	6,692	16,730	
2000	967,812	355,964	167,722	862,555	318,940	95,682	42,132	15,001	16,893	62,925	22,023	55,057	자급단성

주 : 1. 사슴증식율 = 26.8 % (년초두수 × 35 % 자용 각 50 %에서 유민 및 살임 15 % 제외). 두당 1두생산. 갑수는 년말 총두수의 6%

2. 두당생산량 = 꽃사슴 300 g (8 양) 레드디어 1125 g (30 양) 엔크 2500 (66.6 양)

3. 건조율 : 꽃사슴 30%, 레드디어 31%, 엔크 34%

4. 절각가능두수 : 년초두수의 35%

5. 사슴수입총수 : 1955-1975년 사이에 수입된 사슴은 꽃사슴 610, 레드디어 250, 엔크 300, 기타 56 등 계 1,216두입.